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었다.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참다운 생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통스런 윤회의 쳇바퀴를 끊었이 들 수밖에 없었던 암흑의 세계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나는 광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 보이셨으니, 하늘과 땅이 열려 꽃비를 내리고 산천초목이 함께 기뻐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가 시작 한지 어언 254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그날의 환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다. 부처님이 열어주신 그 복된 세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한껏 느끼며, 그러한 세계를 열어주신 부처님께 온 몸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날은 바로 2544년 전의 그 날에 다름 아니다. 이 법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은 오심도 가심도 없으시니, 우리들이 온 마음을 열고 그 분을 우리 속에 모시는 이 날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이 나에게

## 봉축사설 나의 삶 속에 모시는 부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봉축하는 날임과 동시에, 진정으로 나와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과 실천 속에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큰 서원의 날인 것이다.

계절도 좋은 화사한 이 봄날에 한껏 부처님 앞에 우리 행복과 감사의 몸짓을 드리자. 사부대중 함께 어우러져, 밝을 수놓는 아름다운 연등 불빛에 지비와 지혜의 광명을 담아 온 누리로 전하는 화려한 축제를 벌이자. 우리 불자들의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봉축 행사야말로 바로 부처님 자비와 지혜 광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첫 걸음이다. 이 복된 날의

기쁨과 서원의 축제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불교계를 덮고 있는 어둠과 갈등을 풀어나고 적극적으로 중생구제에 나서는 불교로 거듭나자.

부처님은 이미 오셨고 또 나날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부처님의 바다에 온 몸을 던지자. 늘 '부처님 뵙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너무나 먼 남으로 모셔왔던 부처님을 이 날을 계기로 가까이 모시자. 나의 현재의 삶, 나의 중생상 속에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구체적인 실행을 일으키자. 장사하는 부처님, 회사원 부처님, 청소하는 부처님, 학생 부처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를 바깥으로 세상을 바깥으로 움직임을 일으키자. 불교 정토가 어디 따로 있었는

가? 이렇게 진실한 서원을 지닌 불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불세계가 아니겠는가? 부처님 오심의 큰 의미, 부처님의 큰 부촉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끊이지 않게 나가 온 중생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그러한 세상일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오늘의 여기에 부처님을 내 안에, 또 우리들의 손잡음 속에 모시기를 서원해야만 한다. 오늘 여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미룬다면 그 미움이 없어 내일도 또 내일도 미움이 이어지고, 부처님은 내일 또 내일 오실 것이다. 오늘의 세계가 어제의 세계와 다르고 내일의 세계는 또 오늘의 세계와 다르기에, 바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는 우리의 실행도 나날이 새롭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지혜 눈으로

오늘의 달라진 현실을 바로 보고, 부처님의 자비행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 가, 내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좀 더 환하게 밝은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참다운 생명으로 참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을 여기에 상주하게 하는 우리의 실행이다.

이렇게 큰 서원으로 불교 문제를 보고 사회 문제를 보자. 부처님이 열어보이신 광명의 세계, 그 밝은 빛 앞에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 참 뜻을 바로 보고 그 빛에 온 몸을 던질 때 우리들의 참된 원력과 실행에 의해 올바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큰 서원에 바탕한 실행운동이 일어나면 작은 갈등과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하기에 불교가 제대로 서고, 세상이 불세계

로 바뀌어 나가려면 부처님 오심의 함 뜻을 깨우쳐 그것을 나와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서원으로 삼아야 한다. 온 인류가 설레임과 불안으로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변화가 빠른 만큼 우리들의 부처님을 모시는 삶도 더욱더욱 치열해야 하기에, 우리 불자들은 더더욱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서원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나날이 나와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삶이 이어지기를 힘차게 발원하며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는 선언을 '오호라 나 날 때 내 소리로 세'라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부처의 몸짓을 시작해 보자. 아직은 어설피 몸짓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 몸짓으로부터 불교계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는 힘찬 실행을 일으켜 온 세상이 부처님 오신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자.

## “달라이라마 9월초 방한”

범불교대책위, 티베트 망명정부에 공식 요청키로

### 정부 입국허용 시사

오는 9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라이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범대위)는 정부가 최근 들어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에 대해 신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달라이라마를 9월 4~9일 한국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4월29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조만간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공식 초청하는 편지를 인도의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범대위 대표단이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등 타종교 지도자들을 방문, 달라이라마 방한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범대위의 이런 결정은 이정빈 의 교통상부 장관이 4월28일 달라이라마의 한국 입국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데 따른 것. 이 장관은 4월27일 당사위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마련한 만찬석상에서 “불교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구의 3분의 1을 신도로 가진 불교계의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조치에 대한 항의가 계속될 경우 한국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중국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범대위 정웅기 사무국장은 “범대위의 공동대표단회의는 범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범대위 대표단을 티베트 망명정부에 파견, 6월14일 달라이라마를 친견, 방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자비와 평화의 정신 전파하자”

교황청 초파일 축하메시지 로마 교황청의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코 아린제 추기경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세계 불교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새 천년을 향한 대화의 순례자들’이란 제목의 이 메시지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우편으로 전달됐다. 아린제 추기경은 축하 메시지에



◇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 회원 50명은 4월 29일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 “모든 불교인들이 행복한 식가 탄신일을 맞이하기 바란다”며 “불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선의의 인류와 함께 연인과 용서, 자비와 우애, 정의와 평화의 정신이 전파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부처님 은덕 이망 충만”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축전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2

일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11일)을 앞두고 불교계에 축전을 보내 “이 땅의 불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덕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우리 사회에는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진·선·미의 조화 속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 “불교의 부정적 인식 사회참여 무관심에서”

윤원철 교수, 중앙신도회 세미나서 주장

불교가 민족의식에 바탕하여 환경 인권 복지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사회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일 ‘한국 사회의 현실과 바른실행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봉축 실행연선 세미나에서 윤원철교수(서울대 철학과)는 ‘한국사회 현실과 불교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정빈과 금욕의 생활태도, 타문화에 대한 포용적 사상과 전통민족 문화 대변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한국사회의 주류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윤교수는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참여에 대한 무관심에서 지적된다”며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힘있게 부활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교리 및 전통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 과학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실행의 방향’을 주제로 제한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불법의 진리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재가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인도도권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것 재가세력이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며 재가공동체는 의외적으로 극적 불교공동체연대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정신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노부호교수(서경대 경영학과)는 “승가위주의 한국 불교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재가불자들이 중심으로 현실참여 등 실천의 가치관을 뚜렷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kwkim@buddhapia.com)

## 현대만평 박구원



민족대화를 기대하며...

### 대만의 초파일 ‘첫 공휴일로’

지난해 공휴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대만은 11~14일 전국에서 봉축행사를 봉행한다. 서울장충동 불광산사 주지 의은스님에 따르면, 대만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 경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꽃차행진, 삼호(三好)운동, 국가공휴일 제정 기념 콘서트 등을 거행한다. 꽃차행진은 우리나라의 제등행렬과 비슷한 것으로, 12일 부처님 일대기를 형상화한 차랑을 앞세우고 타이페이 시내를 행진한다. 삼호운동은 ‘좋은 일을 하자(做好事)’, ‘좋은 말을 하자(說好話)’, ‘좋은 마음을 지니자(存好心.)’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벌이는 달리기 대회다. 관육법회는 타이페이 중정기념관 등 3곳의 도시에서 14일 동시에 봉행한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해 6월 부처님 오신날을 국가공휴일로 제정했다. 정성운 기자

### 美, 초파일 공휴일 제정 움직임

미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불교협회(Buddhist Council of New York)는 3월 9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봉축일을 미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985년 스리랑카의 피어타사(P.K.Piyatissa) 스님에 의해 설립된 뉴욕불교협회는 그 동안 미국 전역에서 ‘공휴일 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스리랑카, 태국, 일본, 미얀마, 중국, 한국, 푸에르토리코, 티베트 등 22개국의 79개 단체의 후원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 제연합은 15일 오전 10시 소강당에서 뉴욕불교협회의와 스리랑카 대사관이 주최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광삼	등록번호: 다-3379
논설고문: 고은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54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에 따른 대자비행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대비원력으로 정진 하겠습니다.

- 총무원회의의장 탄성
- 총무원장 정대
- 중앙총회의의장 법등
- 호계원장 월서
- 교육원장 일면
- 교원장 정

불기 2544년 5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